

이 시간 로마서 1 장을 다같이 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1:1).** 라고 선언하며,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쓰기 약 25 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며, 거기서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여 뉘시오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5 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할 때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7-8 )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울이 25 년 전에 결단했던 결심이 아직도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5 년 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고 말한 바울은, ‘예 지금도 의심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같은 결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같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만이 과거의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5 년 전에, “주여 뉘시오니까?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한 바울은 25 년 후인 지금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사도행전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공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일인데,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란 사람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경기장으로 데라고 와서, “크도다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이여!” 라고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게 했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은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고린도를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가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거쳐, 결국은 로마에 가겠다는 소원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라고 불리는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가 사도행전에서 역사적으로 로마서가 기록된 때와 장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자신을 던져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계획 대신에, 마케도니아로 향하여 북쪽으로 육로의 길을 택하여 드로아를 지나 해안으로 둘러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도착하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오순절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옮겨 거기서 2 년간 투옥 되었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므로, 결국은 사도행전에 기록됨과 같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약 2 년 전쯤 되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갈 소원과 목적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닌 것, 혹은 높은 것과 낮은 것, 또 큰 것과 작은 것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바울이 말하기를, ‘천막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라고 하면, 그는 천막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타 운전수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낙타 운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그것이 당신의 생활에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상의 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좀더 큰일을 해 보려고 감당치 못할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지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일에 관여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간증을 말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은 일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든지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야망과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걱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물론 로마서가 이 결과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1:2).**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집 하나를 짓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에 계시지 않는가? 그들이 아직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는데,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다윗 왕이여, 마음의 소원대로 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다윗에게 성급히 말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전하라. 그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 그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하라. 그의 씨가 왕위에 오를 것이니, 영원토록 계속되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 왕이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말씀 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당신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시겠지만, 당신의 씨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하여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메시아가 그의 씨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 주께서 양 지키는 목동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모든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막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샘 룰로라는 성도는 말하기를, ‘기도가 극치에 이르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들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할말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감당키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따르면,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가지인 이새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흥미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그의 조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윗으로부터, 다른 가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상상하는 요셉까지 이릅니다. 지금 솔로몬의 계통의 족보에서 여고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렘 22:29-30 에 보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고나의 씨가 다윗의 왕위에 다시 앉을 수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가 요셉의 후손이라면, 그는 왕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다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은 엘리의 사위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다른 계보로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처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후손인

여고나를 통하지 않고,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과정입니다. 여고냐의 후손은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수가 없는 이유는 그의 씨가 영원히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족보가 모두 다윗을 통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1:3-4)**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선언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1:5-7).**

이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쓴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로마라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성도들, 곧 교회에게 하신 편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약에서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은 항상 함께 가고, 또 순서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강과 은혜라고 기록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치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통해서 확립된 하나님과의 평강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속에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내자신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나의 선한 일을 노력하는 한, 결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항상 고토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항상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곤 했습니다. 나는 안식을 찾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 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내 마음속에 평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 생활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1:8)**

로마에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1:9).**

바울이 그의 기도생활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한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마 6:6).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특히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간다고 광고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한 카펫 위에서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 그리고 양탄자 한 조각을 5 불에 사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기도 양탄자를 가지고 가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주님의 발이 달을 만찬 곳에 양탄자를 퍼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당신을 위해 감람산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기도제목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기도제목을 보낼 때에 현금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지에 당신은 작은 기도 양탄자 조각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하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 생활에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애 항상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0)**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가지 그가 아는 것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는 일과 투옥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1:10) 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로마로 가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옥에 갇혀 용기가 저하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바울아, 힘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한 증거를 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비록 배가 파산을 하였고, 배가 파산함으로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부블리오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바울이 섬에 있는 동안 많은 말타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웠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4 일 동안 바다에서 폭풍으로 사람들이 토하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1:11)**

바울의 소원은 단지 로마에 있는 경기장이나 경이적인 모든 대리석 조각이나 건축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소원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신령한 선물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1:12)**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당신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봉사는 서로 주고 받음으로 항상 상호간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같이 막혔도다(1:13)**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아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14-17)**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나는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있고, 로마에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불의하게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되, 의로움의 기초에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무조건 형벌을 모두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의로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의 기초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연도(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할 곳에서 예수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위한 대속의 희생이 되는 기초에서 용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용서에 대한 의로움의 기초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빚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즉시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1:18)**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발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먼저 나타나고, 둘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경건과 불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 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돌 판은 처음 4 개의 계명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자, 첫번 4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돌 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돌 판의 명령을 어기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그 말씀을 불의한 가운데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1:19)*

나 자신의 양심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양심 속에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심령과 양심 속에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1:20)*

아니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1:20-21)*

지금 내 생활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다룰 때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다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대에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이러한 두려운 것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들의 많은 가르침들이 잔사로 경건치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람을 높은 권위에 앉히게 되고, 하나님을 그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척,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척,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자신의 소원이거나 일시적인 생각이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어야 하는 격이 됩니다.

나는 아주 큰 교회의 잘 알려진 목사가 쓴 책에서 그가 자전거를 갖기를 원했고, 그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시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화가 내며, 말하기를, ‘내가 이토록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자전거를 주지 않으시니,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무슨 종류의 자전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자전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텐 스피드, 혹은 크루즈 등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하라” 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성경책에는 그러한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전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내가 무슨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전거의 모델 번호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강력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이거나 나의 번덕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에 맞추어서 일하는 지니와 같은 요정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지니와 같은 요정으로 대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지어다”(벧전 4:19).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길만이 내가 아는 참된 평화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안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포트에 있는 한 땅을 구입하려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땅을 가지게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땅을 꼭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로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이 땅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드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 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마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기대치 않고 사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 올 때에 마음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결코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마음의 동요가 없음은 그가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내가 계획한 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변경시켜도 좋습니다. 나의 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주님께 뜻에 맞추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나의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내가 계획한 여행이나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미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1:21-22)**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영접치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내 모든 운명의 주다. 나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 만물을 바라보고 가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현상을 떠나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발생,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에 의해 이뤄졌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자들이 상투적으로 잘 사용하는 문구가 우연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이든지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연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 결국은 당신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말합니다. 수 억년을 통해서 수 억의 자연 발생적인 결과로 갑자기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세대를 이루어서 당신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유럽에서 1975 년에 흥미 있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칼 사이긴이라는 과학자가 이 모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에서 지구를 향하여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포지움이었습니다. 그 책이 ‘우주 소통에 관한 매사추세츠 기술 연구원(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n Extraterrestrial Communication)’ 이란 내용의 책을 칼 사이긴이란 과학자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하여 소통하려는 시도의 여부에 대해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제출한 논문을 편집하였습니다. 첫째, 연구 과제가 우주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생물체의 존재 여부의 확률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물체가 존재하자면, 생체 세포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모든 가상의 악조건들을 컴퓨터에 넣어 봤더니 세포 하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 의 27 성에 겨우 한 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보였습니다. 가령 지구가 60 억년이라고 가상 한다면, 이것은 10 의 17 성의 초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를 생성하는데 60 억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포 두 개를 생성하는데 요구되는 확률의 가상시간은 사람이 계산하는 수를 능가함으로 우주의 생물체의 존재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지구에 소통하려는 시도를 연구해 보려는 심포지움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죠.

이 논문을 흥미 있게 읽었는데, 만일 지구 밖에서 생물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에서도 생명체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명체를 설명하자니 가상적인 기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고, 각가지의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수 억년 전에 이 땅에 원시적인 형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세포가 지령이 같은 모양으로 발전 되어, 이것이 물에서 나와 육지에 오르려고 시도 했을 때. 물고기 같은 형질이 낯선 환경에서 펄펄 뛰다가 바위나 산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난 자리가 점점 자라 발과 발가락을 가진 다리로 변화였고, 또 수 십억년이 지나서 다른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훌쩍훌쩍 뛰던 것이 이제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말한 바울의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선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환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헛된 상상에 빠지게 되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과학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황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1:23)**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로새겨 사람과 같은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었다. 고대적 사람들이 숭상하던 우상을 보면 흉하게 생긴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이나 피조물을 자식들의 신이라 하여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1:24-25)**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한 아이를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sunshine and health magazine 을 숨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음화가 가득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미국에 있는 누드주의(벗은 몸)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지를 남학생들이 훑쳐보고, 서로 연락하여 그 잡지를 구입해 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애에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음화들이 실린 잡지들을, 식품점 가게나 약방이나 어디서든지, 공공연하게 공중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것들에 버려 두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적 부패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을 동반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주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함과 사람의 생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소원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며, 자기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진화론의 결과적 논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세포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한 변화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자연의 적응력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연을 신격화하여 비합리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을 보고, 자연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비합리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자연을 바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말해야만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보고,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고, 비합리적으로 관찰한다면,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1:26-28)**

극도로 부패하여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에 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경고하였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생활에서 제거하고, 학교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양심에서 제거하고 나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도덕적인 시공창에 더 깊이 빠져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함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가 도덕적인 밑창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의로 가득차고,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1:29-31)

마치 아침 신문의 기사를 읽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에서 배제하고 나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함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현재 우세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경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1:32)**

요즘 당신은 연속극을 보고 있습니까? 연속극을 즐기고 있습니까? 미궁에 빠져있는 살인 연속극 같은 것을 즐겨보고 있습니까? 음탕한 X급의 영화 같은 것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러한 영화를 보며 즐기고 있다면,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독선적인 태도로 ‘나는 음란한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결코 이러한 악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읽고 즐기며, 그러한 영화 장면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장면을 보며,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의 함정에 빠뜨리고, 그 속에 끌어 넣으려고 우리에게 그의 계락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간계로 가득히 둘러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적이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단지 인생의 극이야! 나는 인생의 극을 좋아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관망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쾌락을 누린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2:1 상)*

나는 이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섭고 나쁘게만 되어 가는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던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핑계치 못할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남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2:1 하)*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 때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이중으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나쁜 것을 알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이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단지 당신 자신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2:2-3)*

고린도후서 5 장에 보면, 바울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고후 5:10-11)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무슨 면역이 있어서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리라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2:4)*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오래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즉시 벌을 내리시어 찢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시 없애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노 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온 가족을 살해한 기사를 읽고, 또 그가 법정에 여러 달 동안 재판 받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공의가 속히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나의 경우라면, ‘오, 하나님, 참아주소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사오니, 언젠가는 제가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오랫동안 용납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만일 옳지 않게 보신다면, 복을 벌써 거두어 가셨을 것인데...’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죄짓는 생활을 계속하여도 그들의 생활에 복이 계속 내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2:5).*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댐으로 막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당신의 죄와 불의한 일들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니, 그때는 심판이라는 홍수가 일어나 그 동안 당신이 쌓아 두었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신을 휘몰아 갈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에게 “화, 화, 화로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를 경고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이 부어질 세 나팔 재앙이 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최악 된 생활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그의 심판을 참으실 지가 염려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심판은 오고야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을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2:6-11).**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2:12).**

지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야심이란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2:13-15)**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각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셔서, 나의 양심이 나 자신을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2:16-17)**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2:18-23)**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자신이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의 외적인 면만을 지키고, 내적인 법은 여기는 일을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자는 “살인하지 말라” 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신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죄를 범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당신의 생활 속에 우상이 있느냐? 우상이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 어떤 목표나 야심이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능가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2:24-25)**

이제 할례에 대해서 보면, 그 배후에는 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것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영적 상징입니다. 성령을 좇아 사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의식을 따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하나, 영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여도 계속 육신적으로 살면, 당신의 할례가 무의미하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견지에서 물침례란 육신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은 죽었고, 옛 생활은 끝이 났다는 상징입니다. 물에서 올라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상징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앞으로 뒤로 물에서 세 번씩이나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육신을 쫓아 살고 있다면, 침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침례를 마음에 행하여야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행하여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쫓아 사는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2:26)**

이제 이러한 진리는 침례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침례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살아 있고, 성령을 쫓아 살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비록 침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요하는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된 침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며, 그것은 베드로에 의하면,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는 어떤 사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단 한가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고,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머지 모든 주중의 날은 나의 육신적인 생활과 세상의 욕망과 목적과 야심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2:27-29)**

이제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더러운 마음과 범죄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을 자신들도 행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입술로 말은 잘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할 법을 외적 의식은 잘 행하지만, 마음속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판단은 잘하면서도 그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므로 그것에 유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법으로 법 없는 자들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였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엄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연에다 이상한 가설을 기초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언받았습니다.

끔찍하고 어두운 결론을 당신에게 주는 듯하나, 3장과 4장에서 죄 된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려고 그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를 그림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과 같이 묘사하기를 좋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색깔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림의 배경을 먼저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캔버스 위에다 차게만 보이는 새까만 색깔을 붓으로 찍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처럼 절망적인 배경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은혜를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 된 세상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삶은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살게 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장을 읽어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내용이 담긴 3장과 4장을 미리 읽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악이 담긴 TV 보는 것과 음탕한 잡지를 보는 것을 제거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함정에 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일을 즐기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와 사귀며,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총만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로마서 3 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말합니다. 무할레나 할레나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3 장 1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3:1)**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나? 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많으니(3:2)**

바울이, “범사에 많다” 고 말했으나, 이 본문에서는 단 한가지로 그 “나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한 가지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음”인데. 우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유익과 그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복사하기 위해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이것은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신성한 신뢰가 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성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복사할 때에, 성경을 낱말이나 문장을 복사하기보다 낱자 하나하나를 복사하며, 한 사람이 복사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을 바로 했나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복사할 때에, 그들은 지우거나 글자 위에 줄을 친다거나 하는 등 어떤 경우로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의 실수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한 그 한 곳만 아니고, 전 성경 두루마리를 다시금 복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책은 한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에 한자를 실수하면, 그들은 전 두루마리를 찢어 버리게 되어, 수개월 동안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실수도 전혀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사야서보다 600 년 전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현재의 이사야서와 비교해 본다는 것은 흥미 진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기 때문에 거의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가까운 때에 복사된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놀라운 일은 중요한 변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3:2)**

그들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왔고, 신실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곧 “엘로힘,” 혹은 “엘” 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붓을 씻고, 손도 씻은 후에, 새로운 잉크에다 붓을 찍어 “엘로힘” 이라는 말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이란 명칭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을 기록 할 때는 그 자음을 기록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씻은 붓으로 새로운 먹물에다 찍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인 ‘YHVH’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자기의 더러운 입술로 발설할 수 없다고 느껴,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치 못하도록 모음을 모두 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신성한 신뢰를 가지고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 보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3:3)**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3:3)**

만일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그의 백성으로써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3:4).**

그는 시편 51 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뱃세바와 범죄 한 것을 고백할 때에, 그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시 51:1-4,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공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에서도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3:5)**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쟁으로 늘어 놓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정하고, 가상의 예를 들며, 사람의 지식으로 논리를 늘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를 나타내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나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나타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3:6-7).**

요즈음 아주 흥분되어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지만, 거짓말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였는지 거짓으로 꾸며,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짓말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인 산타아나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에게 연결시키면, 지침이 양성이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나타난다고 선전했습니다. 어떤 죽어 가는 죄 많은 사람에게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임종이 가까운 성도의 몸에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양성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불덩이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운전 할 때에 자기 옆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를 찾아 돌아 다니면서, 이러한 이상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놀랍게 중생한 후, 이 기계에다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오른쪽으로 너무 가버려서 우주와의 소통이 사람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집어 넣은 다음, 그는 이러한 기계가 자신을 무릎 꿇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참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잘못된 과정이라도 그것은 옳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래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신을 랍비라고 자칭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그의 아내가 이 사람의 실태를 밝힌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중생한 랍비라 자칭하면서 계속 가르치므로, 사람들이 그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성경 가르침을 따르며,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랍비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3:7).**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3:8).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벌써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니, 또 그의 크신 인내가 나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은 감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의 차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차를 볼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하시는 일에 대해서 꼭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오 하나님 도와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자기가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갖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맺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인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바울은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요뇨? (3:9 상)**

이것은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보다 나은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9 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죄 문제에 관하여는 나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3:10-12)**

지금 바울은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놀라운 진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만일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실함을 받아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보라. 그들은 칼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몇 시간을 명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실 줄로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의 배후에는 자신들의 마음속의 평안을 찾고 있다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화평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평화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환과 같으니라(3:13-18).**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3:19-20).**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범하는 근본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나타내고, 널리 알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실과 자신의 도덕적인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 속죄일인 욥 키퍼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언약으로 세우신 큰 속죄의 제사일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죄일에 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작년에 행한 일을 반성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난 해에 지은 죄를 착한 행실로써 보상해 보겠다는 사상이 이 날의 배후에 들어있습니다. 욥 키퍼 날이 오기 전, 7일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날이 오면 반성해 볼 때, 착한 일이 악한 일보다 많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실패를 했나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아주 전혀 다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느끼는 독선적인 면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나름대로 법을 해석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의 경향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7-8)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고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신의 의와 옳은 행실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용기가 저하되어 영원히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지런한 노력에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욱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다섯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농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유치원 선생)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은 모두 헛수고인 것을 가르쳐주며, 너희 육신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일은 당신을 영원히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당신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당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나는 율법을 모두 지켰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선하게 살며, 외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였듯이, 그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은 불쌍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3:21)**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겠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3:22-24).**

오늘 만일 당신이 의롭게 살아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를 얻는데 좋은 후보자가 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려는 노력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3:25-26)**

하나님은 문제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귀기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써 스스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도 자유의지로써 스스로 통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의 존재를 인식케 하시고,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믿고, 절대 복종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아는 과일 나무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좋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곧, 영적으로 죽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깨져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사 59:1-2).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귀기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사귀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의 사귀기를 다시금 가지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사람의 죄를 믿음으로 동물에게 전가하는 제사제도를 수립하신 것입니다. 황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는 손을 얹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믿음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그 사람의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죽기 때문입니다. 죄지는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소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의의 의미를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귀기를 다시금 재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속물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므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귀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사제도가 오늘날에도 허용이 된다면, 당신은 짐승을 가져와서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사귀기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내려주신 복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 고속도로를 향하여 들어가려 할 때,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귀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가져와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모두 믿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비하신 희생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명하실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라는 말씀 옆에 놓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네게 보이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고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3-14).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란 말씀이 모리아 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예비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율법에서 제정된 모든 제사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예비하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입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이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 곧 영적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에 의로운 기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과거의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 믿는 자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3:27 상)**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그리스도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랑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가지도록 설교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을 해야 하고, 더 연보를 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계획표를 세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잘하면, 별칭의 도표에 표시를 해 나갔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이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루에 기도를 두시간씩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네 시간을 소모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세 시간씩 전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선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루에 세 시간씩 바닷가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말씀 읽는데 보내는 시간이야 말로 나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두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절망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서로 둘러앉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하였나를 자랑하는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는데, 나의 자랑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아니라, 내가 만일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혹시 자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랑할 것이 아주 없습니다.

####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3:27 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랑 할 수 있습니까?

####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3:28)**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29-31)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언하시기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공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단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 넣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고 합니다.

**그러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4:1-2)**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유브라데 저편에 있는 집안 가족을 떠나 내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여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기다리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에게 바칠 의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만일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4:3)**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4:4)**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시고, 결코 빚을 갚을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님께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빚질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에 의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한 의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가 되시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시고, 나의 행한 특별한 노력과 행위와 나의 희생과 하나님을 위한 나의 결단에 대해서 상을 주셔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4:5)**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도 의롭게 되는 문이 열려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의 신실한 헌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척 목사님, 이 주간 당신은 고속도로에서 앞을 갑자기 가로지르는 위험한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기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이 주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주저되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더욱이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한 직후에도, 내가 예기치 않았던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내 자신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음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이라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많은 착한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한 보따리 지고 와서 주는 그런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만일 행실이 좋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선물대신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행실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 반복해서 그것들을 조사하여 누가 착한 아이며, 누가 못된 아이인지를 조사합니다. 착한 아이는 선물을 받게 되고, 못된 아이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지런하고 신실한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 행한 좋은 일에 대해서 상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그의 은혜에 기초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 기초한 복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심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한 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제거하셨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드립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실패와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메달려 있고, 감히 내가 스스로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4:6)**

시편 32 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4:7)**

“복”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오,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란 뜻입니다. “허물을 용서함 받고, 그들의 죄악이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란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다윗의 말한 경위를 알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아주 무겁게 눌러서 그의 영적 상태가 마치 여름 가뭄같이 메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밤낮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어 그의 뼈가 썩는 듯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 담대히 말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4:8).**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지은 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성경에 이러한 선언이 없으면, 내가 감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선언할 따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 않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4:9-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록을 보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 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며, 육신의 할례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 그가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4:11)**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시며,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조상도 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4:12-13)**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주시기 400년경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약속이 족속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된다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4:14-15)**

지금 율법이 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4:16)**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 자신에게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신실함이나, 그 무엇이든지 믿음 이외에 달려 있다면, 매일매일 의롭게 되는 일이 불확실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내일 실수하여 구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나의 행위에 따라 얻어진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4:16-17)**

단지 유대인 뿐만 아니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4:17)**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흥미 있는 국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임신하기도 전에, 말씀 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치 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은,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간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시간에 존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는 존재하시는 것처럼 말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몸을 떠날 때에, 나는 즉시 모든 것이 현재인 영원이란 시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 3:15 을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의 관념이 없는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 오늘이 되고, 어제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 일에는 파사디나에서 로즈 퍼레이드(장미로 장식한 가장행렬)를 합니다. 이 날은 신년의 첫 날입니다. 이 장미로 아름답게 장식한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콜로라도 대로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아름다운 장식이 롱비치라는 이름을 가진 장식의 장미꽃 차였습니다. 그 앞에는 나팔행렬이 앞서서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차가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나!’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꽃차는 지나가고, 다른 시에라 마드레라는 꽃차가 이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꽃차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꽃차는 몇 분전에 뒷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이미 찬사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시에라 마드레는 뒷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고, 또 네 불룩을 지난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라 마드레 꽃차에 대한 장식을 보고, 감탄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다른 꽃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지나가는 아름답게 장식한 꽃차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시에라 마드레 꽃차가 사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꽃차는 행렬을 따라 콜로라도 대로로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 다가 오는 장식차를 보고 있으며, 이 새로 지나가는 꽃차는 사분 후에, 시에라 마드레가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계속 행진하는데, 이번은 롱비치 꽃차가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정된 시간 범위에서 한 곳에 서서 모든 장식한 아름다운 꽃차를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행렬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내가 Goodyear 풍선을 타고, 파사디나 상공에서 밑을 내다본다면,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렬을 한 눈에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나갔던 롱비치 꽃차, 그리고 시에라 마드레 끝을 지나가는 첵시코 장식 꽃차 행렬도 동시에 모두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모든 행렬을 즉시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로의 한 모퉁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지나가는 것만 보아야 하는 시간의 흐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롱비치 꽃차가 얼마나 아름다우니!”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간에 그 차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으므로, 그 꽃차에 대해서 말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밖에 있는 영원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시간 밖에 계시므로, 그것을 미리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단지 미리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한정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분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흥미로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취하여 내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취하여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아들과 함께 그의 사환에게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소년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 오리라” 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며, 잠깐만 당신이 그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사환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직 어떤 아들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반드시 나와 함께 돌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가 나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시려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삼일간 여행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삭이 나와 함께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이들을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하신 말씀이며, 그는 아이를 가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의 아들 이삭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4:18)**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4:18-19)**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째 열쇠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려움을 생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첫번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렵고 불가능이라고 구분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나 되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으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아마 이 때는 그의 정욕이 쇠하였을 것입니다.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사라는 이 때에 폐경기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이나 어려움을 생각치 않았습니다.

둘째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4:20),**

‘주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라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라가 그의 평생에 아들을 원했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4:21)**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4:22)*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 그가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였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4:24-25).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롭다 함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말합니까?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5 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낭용하여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다. 자기들의 정욕과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과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5 장에 둘러보면,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만일 여기서 오늘로 말씀공부를 끝내 버리면, 당신은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 그가 기쁨으로 죽음을 택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통을 그가 대신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나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원치 아니하시는 일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의 걸음을 걷기 원하고, 나는 그가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어떤 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법에 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로마서 5 장을 다같이 펴봅시다

로마서 3 장 이후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곳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무죄로 선언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4 장에서는 바울이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전제 아래 이제 5 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5:1 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바울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경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진 경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첫 번째 복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

만일 나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어떤 순간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나의 삶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서로 맞지 않게 살고 있는 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행함이 아주 뛰어나고, 매우 좋으나, 다른 때는 실패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선한 행실에 달려 있다면, 내가 선한 행함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내가 실패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공부에서 바울이 시편 32 편을 인용했는데, 그 구절들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죄와 허물을 탓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5:2 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5:2 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우주적인 선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당신에게 맞는 진리라고 느껴느냐? 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아주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에서 실존주의의 사상을 표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미술이란 그림을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플라스틱 봉지에다 페인트를 가득 담아 캔버스에다 던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페인트가 양 사방으로 흩어져 칠을 한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의 해지는 장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나는 현대 미술이라는 그림 몇 점을 보았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얼마나 좋은 그림인가!’ 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당신이 직접 보고 해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천장에 스페인식 벽도로 장식한 그림을 바라보면, 어떤 것은 말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직접 보아야 경험할 수 있고, 당신이 직접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술의 이상적인 것과 목적이 실존주의의 철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와 하와이에 갔다가 돌아 오면서, 비행기에서 별로 가치 없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영화의 끝장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을 관람자의 상상에 맡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남자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차려 바른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갑자기 영화가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론 없이 끝을 낸 영화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전형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그 영화의 목적 자체가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결론은 천 개의 다른 결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음악에서도 어떤 것들은 내 평생 그 노래의 주제를 발견할 수 없을 곡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두드리는 소리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북을 계속 치고, 당신은 거기에서 노래 가락을 갔다가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실존주의 결과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작은 외딴 섬에 격리시키고, 당신은 당신의 다른 섬에 격리시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모르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존주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그림을 당신도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곡간이 있는 그림을 볼 때에, 발에는 소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 그림을 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해가 갑니다. 당신도 그 그림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효과는 사람을 격리시켜, 격리된 섬에다가 사람을 갔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활과 진리를 제각기 경험한 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우주적인 선함도 없고, 각 사람의 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참된 진리와 선함을 발견하는데 절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은, 현실은 다만 절망을 초래하므로, 사람이 절망가운데 살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방법으로 방랑생활, 마약, 술 중독, 과식, 도박 등을 오용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에서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으로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암시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실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수한 경우이며, 또한 격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을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궁극적인 경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실존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서 살고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에서 살고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의 현실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삶의 현실을 대면하고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면, 평화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손자들이 시장에 빵을 사러 나갔다가 음화잡지와 같은 것에 노출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유괴할까? 라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다가 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한, 그러한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이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이 설 때에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산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5:3)**

바울이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덟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임이라” 고 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고 하였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경지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괴로울 때에, 다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을 터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포트 비치에 있는 터를 구입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 2 주일 내에 그들의 결정을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얻게 되면 얻게 되고,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타아나 교육지구로부터 그린빌 학교를 구입할 때에, 우리는 교육위원회에 가지도 않았고, 구두로 값을 말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교육지역구의 비서가 전화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학교를 구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5:3)**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울 때에,

**인내는 연단을(5:4)**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국면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서 역사하시어,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은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5:4-5)**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 주실 때에, 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5:6)**

착하고 선하고 놀라운 관대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셨도다(5:6)**

오, 성령님께서 오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5:7-8).**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생활을 주님께 다 바쳐 드릴 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였나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을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네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롬 5:8 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자랑할 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경건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의 자녀인데 당신을 적게 사랑한 적이 있으셨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 하신다고 느낍니다, 혹은 우리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라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내가 나의 딸 쟈이 어릴 때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쟈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쟈이 어떤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후에, 말하기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도,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를, ‘응 그래,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쟈은, ‘아니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하기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그분이 벽장에서 머리를 밖으로 내미시고, 혀를 내게 내밀었어요’ 라고 쟈이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5:9)***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못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서 언급합니다.

대환란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라고 한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섯째 인봉을 떼실 때에, 계 6:15-17 에 보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진노의 날에 그의 피로 의롭게 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더 구원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5:10)***

그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나의 구원을 위한 중보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장에서 “더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은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끄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논쟁의 개념을 보이는 형태입니다. 바울은 자주 그의 편지에서 그러한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화목 되었거든, 그의 살으심이 더욱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 ***이뿐 아니라(5:11 상)***

지금 1 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구절을 보면, 이곳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마지막 경험, 혹은 결과를 말한다고 봅니다.

####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5:11 하)***

이것이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소망가운데 즐거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헬라어에서 “구속”이란 말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구속”이란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구속”이란 말은 레위기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위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히브리어는 kaphar 로 되어있습니다. ‘카파’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뜻이 ‘덮는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짐승의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단지 죄를 덮을 뿐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희생제물은 어느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흠도 티도 없는 어린양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을 베드로는 말하기를, 뱀전 1:18-19 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헬라어 “구속”이란 말의 뜻과 구약성경의 ‘덮는다’ 라는 뜻이 있는 “구속”이란 말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속”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구속, Atonement = At-one-ment). 이러한 뜻에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때나마 죄로 인하여 격리되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사 59:1-2 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으나, 이제 당신의 죄를 제하여 버렸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요일 5:11 과 12 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며,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고 했습니다. 사귀어란 말이 코이노니아(koinonia)인데, 그 뜻은 ‘하나가 된다.’ ‘소통한다’ 와 같이 ‘함께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리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교리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그의 죄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무죄하며, 완전히 중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교리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제시한 논제를 보면, 전체적인 관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을 부인한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착한 행실로써 의인이 된다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교리로 귀착됩니다. 내가 몇 년을 의롭게 되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결코 의로운 행실로써 도달할 수 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저주와 죄책감과 갈등에 빠질 뿐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12).**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 “죄를 죄었다”는 동사가 과거분사 "have sinned" 로 되었으나, 헬라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는 의미의 "all sinned"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써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 행동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는 영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영적 생명의 유전인자를 후손에게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후손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유전인자는 의식을 가진 육신의 몸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후손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 장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엡 2:1-3) 고 우리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에 단지 나는 원래가 죄인임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만일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합니다. ‘오, 천진 난만한 죄성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라!’ 고 하지만, 그들이 무죄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진 난만하다고 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발로차고, 울며, 자기의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 만일 그 아이가 힘만 있다면, 베이비 크립을 모두 물어 뜯든지, 아니면 부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프 탄트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아이들에게 진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에게 치욕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5:13)).***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정죄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한 가지 법만 있었는데, 그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것은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시속 100km 의 속도 제한 법이 없었다면, 120km 로 달려도 티켓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 제한의 법이 있는 곳에서 그 속도제한을 넘어 달릴 때에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속력으로 운전을 해도 티켓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 제한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위험한 운전을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지만, 속도 때문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은 단지 위험한 운전 때문입니다. 죄가 이미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주워지기 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5:14-15).***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롭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16-17***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며, 모든 사람이 범죄 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오고, 첫 아담이 사망을 가져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행동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행동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 것이 아이랜드 사람의 성질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기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새 창조물이 되었고, 새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5:18-20).*

율법이 오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말의 뜻이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녁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과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녁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과녁이 세워질 때 까지는 당신의 활 솜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활을 사방으로 마구 쏘 때에, ‘오, 당신은 정말로 과녁을 빗나갔습니다’ 라고 내가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상적인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잘 이해한다면, 독선적인 생각을 영원히 버리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 옴으로 범함도 많아지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5:21).*

로마서 5 장을 다시 읽고, “더욱”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며, 그 말씀을 대조해 보시오. 그리고 5 장에서 또 상고해 볼 다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등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5 장에서 유의하여 살펴 볼 부분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6:1 상)*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6:1 하)*

물론 아닙니다. 죄를 계속 지으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타내시는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6:2 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원리를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6:2 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생했다면, 옛날의 책은 어디 있나요? 옛날의 책은 죽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하니, 나가서 죄를 짓자’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6:3)*

물이 무덤을 나타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이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됨을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이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6:4)*

이제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으로 쫓아 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담의 기질인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은 옛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었고, 육신의 욕심으로 양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생활, 곧 몸과 혼인 이원적인 생활이었으며, 몸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곧 혼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육신의 욕심에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중생을 했으면, 다시 말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므로, 새 생명인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 우위를 차지하고, 새 생명의 영적인 생활이 시작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새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식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바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6:5)*

내가 물위로 올라올 때에, 마치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6)*

죄의 몸의 일은 끝났습니다. 죄의 몸이 더 이상 나의 생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아직도 우리에게 육신의 욕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를 육신의 욕심과 욕구 아래로 몰아 넣어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육은 나의 영에 대해서, 나의 영은 육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을 지배하려는 이 두 가지의 소욕이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나의 생활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고, 나의 영도 나의 생활의 왕좌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육, 이 둘이 항상 나의 생활을 주장하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항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을 그 때는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떤 날, 곧 끝나게 될 것인데, 나의 영이 이 몸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몸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몸에 살고 있는 한, 나의 마음을 장악하려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9:27) 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요, 싸움입니다, 나의 육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육이 내 마음의 왕좌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죽는 과정입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육의 사람이 주장하여 살아온 육신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옛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월기 날 때, 주님, 그것은 옛 사람에게 속합니다. 몹시 분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은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성이 날 때에, 그것도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통치 아래 살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므로, 이제는 죄에 종 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6:7-10)**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얼마나 많은 때에, 내가 내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흥족한 옛사람의 끈이 나타나니,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가책을 주십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일을 했군요.’ 나는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님, 나는 이것을 죽은 옛사람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것의 통치아래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겨라.” 여기서 “여긴다” 라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만일 나의 육의 몸이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는 죽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지금 당당히 살아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눈물을 머금으며, 고통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6:11)**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6:12)**

죄로 하여금, 또 몸의 사욕으로 하여금 너희 몸을 다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6:13)**

나의 손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육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성결하게 하시사,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이 많은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발이 악한 일에서 멀리 떠나라도록 나를 옮겼습니다. 악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재빨리 멀리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하나님을 위해서 민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바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몸을 육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바쳐드립니다. 항상 나의 왕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의 입을 주님께 바쳐드려 하나님의 복 주심과 권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의 말을 통해서 축복 받고, 변화되는 일도 할 수 있으나, 당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몸을 파괴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생활에 미움으로 가득채워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에 사랑으로 가득채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약속의 성경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6: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란 과녁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내가 활을 쓸 때마다 과녁에 적중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치 못하며, 완전이란 것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30 년을 동행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고 했다. ‘오 바울 사도여, 나도 당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목적을 나의 생활에서 아직 성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에, 아직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생활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해치는 자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폭군인 죄의 능력과 육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중생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곧 새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6:15)***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것에든지 뛰어들기를 주저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6:16)***

모든 사람은 통치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인도 아니며, 선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능력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쫓아 살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종이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에덴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찌니라” 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하는 말이, 이브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라. 이것은 좋고, 맛이 있다. 그리고 죽지 않을 테니, 먹어 보라,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자기를 보호하시느라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먹어 보라.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한 입만 먹어 보라. 만일 싫으면, 다 먹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브의 행위는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사탄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6:17)***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 때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6:18-19)*

만일 우리가 이전에 마귀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듯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열심을 낸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 바친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큰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친 것과 같이, 우리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자!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님의 일과 주를 위해 봉사하는 말이 나왔으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전력을 기울여서 시도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다 바쳐서 살아봅시다.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는지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람은 그저 술 몇 잔 마시고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주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하였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6:20-21)*

당신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 생활에서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불행히도 그 열매는 고통스런 열매이며,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6:22)*

이제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의 열매, 곧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6:23 상)*

사탄은 그의 종에게 일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종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삯을 지불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당신이 죄를 계속 지으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삯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6:23: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삯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6:23 하)*

우리는 아주 정반대의 것을 봅시다. 죄의 삯, 곧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네’ 라는 한 찬송의 시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주님에 의하여 주신 영생의 선물. 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한 균형된 삶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화평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생활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 의의 병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당신의 아름다움을 죄 많은 세상에 나타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합니다. 아멘

우리가 7장과 8장으로 가는데, 이 두 장은 아주 대조적인 장입니다. 7 장은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보고, 이상적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상적인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를 아주 깊은 절망으로 몰아 넣게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것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나타나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8 장은 절망에서 나를 이끌어 내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승리로 이끄는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경험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설명서를 다시 쳐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 자신이 먼저 시도해 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7:1)*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사는 날 동안만 율법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 합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7:2-3)*

그는 율법을 가지고, 특별한 예를 들어, 사람이 사는 동안 율법이 그를 지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7:4 상)*

지금 바울은 6 장에서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7:4 하)*

내가 율법에서 자유 함을 얻었다는 것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다른 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 맺는 삶이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정도가 더욱 엄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시는도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는 믿음의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더 큰 법인 사랑의 법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법이다” 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때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였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열매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당신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사랑인데, 그의 특성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된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패만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결과로 그의 생명과 그의 열매와 그의 사랑이 나로부터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7:5)**

육신에 있을 때의 열매는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림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7:6)**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지 않고, 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이 새로워져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실수를 범하듯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취하여 의롭게 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쓰다 보니, 아주 독선적인 자들이 되고, 그들의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왜곡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선한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의로움이나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욱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러한 일은 나는 하지 않고, 당신이 하지 않는 그 일은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 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

나는 탐심, 곧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은 강한 소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강한 이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성 관계를 원하는 소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 소원을 행위에 옮겨 그들과 성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소원이 죄가 된다고 생각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탐하지 말라, 다른 것을 갖기 위한 강한 소원을 버리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독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강한 소원도 죄가 된다고 하니, 나는 범죄 하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영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결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는 갑자기, ‘오! 율법이 영적인 면을 다루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하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7:8)**

죄가 나를 사로잡아 여러 가지 강한 소욕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소원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색욕입니다. 바울은 ‘강한 정욕이나 탐심을 하지 말라’ 는 계명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7:9)**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으로써 바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4-6) 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칭한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돌아 다니며, 거리 구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헌금하는 것을 만방에 나팔불어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흠 잡을 때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영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 장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다섯 가지 상반되는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원래의 뜻과 상반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보이는 세상에 국한하여 해석하였으나, 하나님은 율법을 영적인 면에서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나 태도가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몽둥이로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깨닫기를, '내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가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강한 욕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올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은 나의 재판관이요, 나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율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율법이 나를 사형을 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7:10)**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7:11)**

율법은 당신을 죽으므로 저주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함이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열심히 따라 행하고 지키는 율법이나 규칙은 당신을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7:12)**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탐심하지 말라" 라는 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7:13)**

하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보려는 시도를 완전히 영원토록 단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7:14 상)**

바울이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그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7:14 하)**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율법에 나쁜 것이 없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이요, 나의 죄가 사망을 불러 왔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7:15)**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요,, 자신은 육신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7:16)**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일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일 중에 하나이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런 일 중에 하나이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인줄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길옆에 대어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성경님께서 내 마음에 ‘가서, 도와 주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도 있고 한데, 도저히 가서,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내 앞에 내놓을 때에, 나는 먹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먹게 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의 예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7:16-17)**

내 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때가 있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갈 때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가기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 갈 때에는, 나는 마음이 아주 괴로우며, 그러한 일을 행한 내 자신이 아주 싫어집니다. 나의 본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적인 죄성이 웅크리고 있어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자주 이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은 선하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인 육신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7:18 상)**

사람들이 대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바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개선하거나, 개혁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육신의 행함을 좀더 잘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 속에 무슨 선한 것을 나타내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육신 속에 어떤 장점을 하나님께 보여 인정을 받고, 내자신이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나같이 성격이 온화하고, 결코 화를 내지 않고, 항상 관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실상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쓴 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나 힘이나 재능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반석과 같은 척’ 이라고 내 자신을 부르곤 했는데,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믿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수어 깨뜨리시므로, 이제는 ‘모래와 같은 척’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때려 눕히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좋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7:18 중)**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소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소원,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소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 등, 이 모든 소원이 내 속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소원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18 하)**

그러한 소원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 모든 소원을 실천에 옮긴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까요? 소원은 있으나, 행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7:19-20)*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6 절과 17 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7:21)*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동시에,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7:22)*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7:23-24)*

사망의 몸, 이것 때문에 바울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통곡하는 시점에 도달했듯이, 나도 이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못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으니, 나도 바울과 같이 절망의 시점에 이르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행히도 내가 이러한 절망적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했던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절망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나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떻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며, 나의 다른 육신적인 해결 요책을 나는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육신을 개선해 보려는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 규칙을 지켜라’ 라는 등의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다시 외치게 됩니다.

하루는 내가 바울과 함께 이러한 절망적인 시점에 다시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방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여 절망 상태에 이르러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여 내 자신의 노력을 중단하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내가 살아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맡겨 주님께서 역사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승리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나를 육신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는 노력을 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절망에 이르러, 나의 노력으로 애쓰는 일이 끝이 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을 때에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창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일한 것이 하나님께 영접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의 통곡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밖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 짓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7:25 상)*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는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7:25 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비록 내가 이몸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열심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준다면,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금 넘어지게 되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육체인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 나는 육신적인 죄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내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승리할 때에,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저주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부러 육신의 뜻을 쫓아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금하십니다. 이제 만일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나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는 영을 쫓아 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들어 가겠는데, 8장에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

로마서 7 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율법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조절하여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물질적으로는 지켰다 할지 모르나, 율법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여 실제로 율법이 자신을 죽음으로 저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고, 자신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그와 함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그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자주 행하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 실제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와 같은,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항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또한 내 영혼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7 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통곡을 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서 조절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면, 그것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인 면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간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이 곧 간음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내나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에 사로 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8:1)**

이 성경구절은 어떤 구절보다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해를 살아 오면서 나의 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항상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지난주의 실패를 항상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할 것이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느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저주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8:2)**

내 속에서 역사하는 새로운 다른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나의 법을 돌 판에 더 이상 새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 판에 나의 법을 새길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판에 기록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받습니다. 그를 위한 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봉사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나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까지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갑자기 우리의 소원도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8:3 상)**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나는 항상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가진 자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8:3 하)**

모세의 율법을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8:4)**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8:5)**

사람은 낮은 삼위일체인 몸과 마음과 영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혼과 동의어입니다. 곧 사람의 의식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무엇을 하게하든지 그 의식의 조절에 따라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몸의 욕구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몸만 의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육체에 관련된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새로운 음식의 조리법이나, 아니면 아주 맛있는 새로 나온 후식과 같은 것이나, 술이나 포도주나, 성적인 것과 같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마음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욕구에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영이 그의 생활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영적인 일 어떻게 하면 주를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화는 영적인 일에 관해서 항상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육체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의식은 있지만, 동물은 육신의 욕구에 따라 그 의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자들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왜 오늘날 인본주의 자들이 동물세계에 자신들을 관련 시키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주위를 살펴보고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원숭이를 보십시오. 그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뿐입니다. 그의 큰 관심사는 먹는 일, 생식하는 일 등 나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군요. 아마 내가 저 원숭이 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성령님을 좇아 사는 사람이 되어 자신이 동물과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척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타락하기 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좇아 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선언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8:6)**

사망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성경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사람의 의식이 몸으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뇌파가 24 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의사는 말한다. 아무런 의식이 뇌에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연장의 보조 기구들을 모두 제거하고, 모니터에 어떤 반응도 없을 때는 죽은 것으로 인정하나, 만일 모니터에 조금이라도 생명의 활동이 보일 때는 다시금 보조 기구들을 연결시켜 생명지속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여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없을 때는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격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육체의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6)**

영적인 생활은 영광스러운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세계보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많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만을 위한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영의 세계보다 물질의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7-8)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영접하리라 생각하고, 육신의 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의 육신의 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아 드리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의 육신 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4 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영적인 존재인 그룹천사와 24 장로들이 둘러서서 찬송을 올리는데, 특히 네 그룹 천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0-11).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든 삶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아직 살아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원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은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신 가운데 살고 육신을 쫓아 산다면, 허탈하고 갈등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뜻 있고, 성취감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8:9)**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실제로 성령님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 3:4)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5-7) 고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모두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왔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들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 영이 살아야만 만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쫓아 살므로 육신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하나님의 거하신다면, 당신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8:10-11)**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혹은 육이 아래로 내려가고, 영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삼위일체인 사람을 층으로 놓고 본다면,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본다면, 위층이 통치하는 몸이요, 가운데층은 마음이요, 마음은 그 위치가 항상 가운데 층입니다. 몸이 위층에 있을 때는 마음이 몸의 소욕에 따라 지배를 받고 조절됩니다. 영은 죽었든지, 아니면 잠잠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생을 통해서 뒤바뀌는 일이 있겠는데, 사람이 영과 마음과 몸의 순서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마음이 영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몸은 아래층으로 쫓겨 내려가서 더 이상 통치하거나, 나를 조절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몸의 소욕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8:14)**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성경말씀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인 도표를 만들어 자신을 분석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생활을 솔직히 검토해 볼 때, ‘과연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거짓되어 절망적으로 사악합니다. 누가 알리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말씀의 구절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8:15 상)**

이 말씀은 육신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의 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8:15 하)**

“아바”란 ‘아버지’란 뜻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으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8:16)**

하나님은 높으신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사람은 낮은 삼위일체: 영과 혼(마음)과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영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0-24)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은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영의 순서로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몸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이 죽고,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함을 얻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몸의 소욕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중생한 영이 우위에서 나를 통치할 때, 나는 영과 마음과 몸의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높으신 삼위일체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께서 낮은 사람의 삼위일체의 영의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산 영을 가진 나에게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의 영에게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다만 나의 영이 우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영에 의하여 지배되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영에게 증거할 때에, 나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지적인 면에서 증거하심도 아니요, 나의 몸에 증거하심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결합했을 때에,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8:17)**

아이들은 꿈을 꾸는다. 내가 나의 이모님이 몬테시토에 있는 어느 갑부의 집에서 가정부로 있을 때에, 그 집 주인이 유럽에 여행을 떠난 동안 한 여름을 거기서 제 사촌과 함께 지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 모양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일곱 개의 차고와 정렬된 희귀한 자동차를 타고, 마치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흥내도 내보곤 했습니다. 많은 흥미 있는 책들이 있어서 밤마다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장난감 전기 기타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마구간과 수영장 주위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흥미 진진한 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 나는 생각하기를, 어떤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당신 삼촌이 세계에서 갑부인데, 별세하면서 많은 유산을 당신을 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몬테시토에 가서, 내가 한 여름을 보내었던 그 집을 당장 구입하여 그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일 세계에서 제일 부잣집의 유산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빛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8:18)**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님을 좇아 살기 때문에, 생활양상이 아주 달라, 우리는 세상에서 외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2-23)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왕국의 영광과 열망을 당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왕국의 영광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가 많은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받고,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가치기도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등의 긴 고생을 나열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라고 했습니다. 환란의 경한 것이-다섯번 태장으로 맞고, 세 번 돌로 침을 당하고, 성밖으로 끌어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중해에서 밤낮으로 배의 한 부분에 매달려 지났다” 고 했습니다. 경한 환란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8:19)**

지금 불행히도 이러한 구절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 이라는 제목을 걸고, 악성적 교리를 만들고 있는 극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약 40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리가 1948년에 한번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였고, 이것이 다시금 기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 이라는 극단의 교리중의 하나로써 이것은 사람들의 육신에 아주 호감을 주는 교리인데, 온 세상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교리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여 그의 교회, 곧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온갖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서 탱크를 가리키면 쇠가 녹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모든 환자들을 일으켜서 병원이 텅텅 비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당신이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다만 그 때가 오기까지 자신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당신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교리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을 보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8:20)**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써는 완전치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 만으로는 완전치 못하니,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없는 남자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동반자가 없는 남자만으로는 완전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가 온전케 되고, 동반자로서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시고, 그의 아내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또 다른 불완전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헨리 드라몬더 박사는 그의 “자연과 초자연”이란 제목을 가진 저서에서 사람 속의 각 세포의 형질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융합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공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감을 주셔서, 사람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공허를 채울 때에, 비로소 생활의 성취감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8:21)**

어느날 내가 이 썩어질 옛 몸의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 함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러한 영광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8:22)**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8:23)**

내 몸의 구속이 이뤄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의 서신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고후 5:1-2)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데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장막 썩어질 장막 집, 곧 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고후 5:4-6).

여기서 나타난 같은 사상이 고린도후서 5 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되고, 썩어질 몸에 메여 종 노릇 함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탄식하며 이러한 썩어질 몸을 가진 우리들도 구속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벗어날 때에, 우리는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 있는 사실은 바울이 이 몸을 천막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천막을 생각할 때는 이곳이 영구적인 삶의 장소로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2 년 동안 지난 적이 있습니다. 천막에서 지낼 때, 천막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천막에 있을 때는 추위를 면키 위해서 석유 난로를 피우면 석유냄새를 맡아야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구멍이 나서 거기서 찬 바람이 들어와 밤에는 아주 추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막에서 새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 갔을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딱딱한 철로 만든 의자에 앉지 않아도 되었고, 까만 아스팔트 위를 걸지 않아도 되었으며, 석유 난로에서 나는 냄새나 불타는 요란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대신 새 예배당에서는 폭신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고,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걸으며, 이제 다소 영구적인 집에서 안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입을 새 모델, 그리고 새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있는 천막인 나의 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천막의 실밥이 쉽게 터지기를 시작하며, 잘 찢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아주 불편합니다. 이러한 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주 탄식하며, 어서 속히 몸의 구속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 쌓여있는 콜로니 스타일의 집을 상상합니까? 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천막에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몸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잠을 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임게 되는 새 집은 침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8:24)**

우리가 그것을 보면 현실이 되므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란 항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날을 소망하고, 그 왕국을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8:25-26)**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나도 탄식하며,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 나의 생활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으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양자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생활에서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항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결코 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나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수단으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는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기도의 주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주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8:27)**

나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야 할 때에, 예를 들어, 나의 친구 존이 여기 있는데, 현재 그의 형편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에,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오, 오, 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8:28 상)**

나는 이 구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을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이 상했을 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떠 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28 하)**

나는 계속해서 몇 차례 이 성경구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듯이, 당신들이 미래에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역경을 당할 때에,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의 기초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해하는 마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현명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고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불편한 곳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 간다면, 당신들은 마음에 갈등을 가지기보다 안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오, 내가 누구와 의논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 하였으니, 나의 생활에 유익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부친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개스회사의 세일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후에 산타아나 지역에 부동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생활은 풍년일 때도 있고, 아니면 흉년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풍성함의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집이 잘 팔릴 때는 수입이 35,000 불이나 되어 돈을 잘 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그 약속이 폐기될 때는 큰 실망을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집의 매매가 다 성사된 줄 알고, 여러 가정의 지출해야 할 것을 다 갚고, 응접실 가구도 이미 사들여 왔는데,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밀착까지 떨어졌을 때, 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나의 부친은 ‘모든 것’ 이란 글을 쓴 팻말을 책상 위에 놓고 사셨습니다. 큰 집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 나의 부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팻말을 보곤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팻말을 거울에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8:29)**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놀라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나를 가장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으며,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맏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나신 분이시오, 가장 큰 분이시오, 모든 형제 중에 맏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8:30)**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못한 나에게 대해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아직 영광스럽게 된 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영광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미래에 체험하게 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미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전율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내 속에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안식합니다. 나는 이미 이룬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8:31)**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떠한 지옥의 권세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결코 하나님의 적수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대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적수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상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적수가 될 수 없고, 다만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와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해 볼 때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8:32 상)**

이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8:32 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과 같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가 아들을 고통과 경멸과 거절되는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가 되어 나의 자녀들이 어린 유아시기에 몸쓸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열이 나고, 병으로 괴로워 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손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어린 손녀가 오늘 밤 귀에 염증이 생겨 아파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할 수만 있다면,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그 병을 대신 가져 그 어여쁜 손녀가 컷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침대에 누워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모로써 자녀들의 고통을 볼 때에, 그 고통을 내가 당하여 그 고통이 자녀에게서 떠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기 원하는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고통을 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애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께서 다른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과 당신을 위하여 이미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난 그의 사랑은 이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고귀한지 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더 넓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8:33)**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리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 하겠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람들도 자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나 지은 죄와 실패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8:34 상)**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8:34 하)**

그러나 당신은 말하기를, ‘오,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켰는데, 오, 내가 이러한 못된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죄하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8:35)**

다음 질문은 실제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8:35-36)**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8:37)**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보다 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도 영광의 승리를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자가 승자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8:38-39)**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떨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고 버리셨으며,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질인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기인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랑하시고, 나쁜 일을 할 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관계없이 모든 때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위치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동거 동행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당신의 생활에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밀접한 사귀를 항상 갖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유산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극치를 묘사한 로마서 8 장을 이제 끝을 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위치입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주심을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자기 형제인 유대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권에 따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왔던 나라인 유대인들을 한동안 제쳐놓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총만한 사랑으로 들어오려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반자라고 생각 할 것이고, 또한 자기를 비난하며,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도 없음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바울 자신도 자기의 형제인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적개심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강한 말씀으로 9 장을 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9:1).**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어떻게 말하여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나의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크게 놀리는 마음과 계속되는 근심이 있으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9:2-3)**

이것은 아주 강한 선언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선언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우에 그의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위한 큰 마음의 짐과 마음에 놀리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의 동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32 장에 나오는 모세의 진술을 기억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뒤로 물러서라.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계속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묘사하며, 이 사건에서 사람을 영웅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권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그들에게 공흠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족을 위한 무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술한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며,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인생의 죄를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아주 고상한 생각입니다. 나의 모친이 불치병인 암이 걸려 집에서 고생하고 계실 때에, 암의 말기에 우리들이 돌보고 있었는데, 나의 모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저의 모친은 한번도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럽다는 말을 나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친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방에 잠깐 들어가 보면, 저의 모친은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마지막 날들을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의 모친의 방에 들어 갔는데, 그녀가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가운데 나의 주위에 보내주신 훌륭한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나의 모친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매와 나의 딸들이 그들입니다. 이 모든 여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영웅도 아니고, 아무 볼 것이 없는 자이지만,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머니가 몇 일이나 고통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평생에 그렇게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은 없었으며, 그날 아침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척, 그것은 어리석은 요구이다. 내가 이미 네 모친의 고통을 담당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반응하기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나의 요구가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의 어머니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통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 모친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통증을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 모친이 직접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진술을 한 후에,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고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 줄로 알지만, 네 자신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생각이며,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진술은 우리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동족이요, 육신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영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9:4).*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쉬카이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막이 완성 되어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곧 쉬카이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제사장이 수종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곧 쉬카이나 영광입니다. 지성소에 임한 쉬카이나 영광이 그들에게 속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복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나중에 야곱과, 그리고 다윗에게 반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의 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과 나라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9:5)*

바울이 헬라 원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로 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흥정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유감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본다면,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over all**, God blessed for ever. Amen”(Rom. 9:5, KJV) 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and of whom as of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God over all**, blessed forever.” 여기서 이것들을 설명해 본다면, 흥정역에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자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자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강조가 헬라 원어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으며,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9:6)**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인 감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방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주워진 이름이 이것입니다. 날이 밝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이 환도뼈가 붙어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야곱은 40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야곱이 끈질기게 씨름을 한 결과, 그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천사를 붙들고 매달릴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밝아오니, 놓으라!”고 말하니, 야곱의 대답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글에 보면, 야곱이 울면서 간곡히 애걸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부적인 요구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간절히 애걸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 복을 주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애걸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세는 완전히 깨어진 야곱으로, 울면서 간곡히 애걸하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그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는 대답하기를, “발 뒤꿈치 잡이입니다(야곱이란 이름의 뜻)”라고 말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야곱(발 뒤꿈치 잡이)이라 하지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말했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여 참으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뜻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9:7)**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워진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육신적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자신이 행한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일을 인정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하신 일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삭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9:8)**

그래서 이스마엘과 육신에 속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9:9-13).**

우리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반응을 예측했듯이, 14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뇨 그럴 수 없느니라(9:14)**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아니한 자녀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언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니,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생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전 생애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전 생애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가 속이고 간교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또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세상의 터가 서기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였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대에 나를 알고 계셨고, 또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예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전도자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는 손을 드시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주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지에 의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9:14)**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 33:19)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 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 하시기를, “모세야, 뒤로 물러서라. 내가 이 백성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고 하심이 그의 의로우심이 죄를 허용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마음을 넣어 주셔서 그가 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9:15)**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9:16)**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의지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자랑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때는 길을 잃었고 이제는 찾은바 되었으며, 한 때는 눈이 어두웠으나 이제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9:17-18)**

이 말씀도 공평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여 선언 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 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열 번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열 번째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을 굳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히브리 말의 ‘강박’ 이란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 라는 말이 원어에서 그대로 번역되었고, 열 번째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는 말은 둘째의 ‘강박’ 이란 의미의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어의 뜻이 “바로 강박하고 고집된 마음을 굳혔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계속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강박한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마음을 계속 강박케 할 때에,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굳히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굳히실 때는 그 사람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비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을 강박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한 마음을 굳히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요 12:39 에 기록한 것과 같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박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에 이적을 거듭하여 보여 주셨으나, 믿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므로, 드디어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강박케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박한 마음을 굳히시는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공회히 여길 자를 공회히 여기고, 강박케 할 자를 강박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9:19 상)**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허물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는가 말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9:19 하)**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9:2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데, 혹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대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창조의 초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기를,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셨을 때에,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되고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나는 그의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9:21)**

바울은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을 만들고, 다른 그릇은 아름답지 못한 그릇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9:22)**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의 능력으로 치시기 전까지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 는 잘못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벌할 능력이 없으신 모양이다, 더 나쁘게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행위를 인정하고 묵인하는 모양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탕한 삶을 좋아하시지 않으면, 왜 나를 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수도 있으신데, 아무 일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의 방탕한 생활을 인정하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행을 하며 살고 있을 때에, 비록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 할지라도 자주 그들의 명대로 살게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줄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9:23)**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부를 체험케 하기 위하여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9:24-25)**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자비와 은혜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것이며,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9:26-2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다고 말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중에 남은 자, 곧 일부분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9:28-33)**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부딪힐 돌이 되었다면, 오늘날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써 왔는데 결코 달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경중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경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빈틈없이 율법의 의를 지켜보려고 애쓴 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지각적인 반응은, ‘불가능하다. 다 접어라.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생각을 아예 접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눈에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4-8) 라고 했습니다. 나와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한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힘쓰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일을 재미있게 묘사한 예화를 들을 적이 있다. 한 가난한 집의 어떤 사람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학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그 딸은 고향으로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때 입기 위하여 다른 친구 여학생들 모두 새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 싸구려 옷감 집에 가서 아주 싼 값으로 천을 사서 불품없는 솜씨로 옷을 기워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고르지 못하자, 다시금 길고 하여 결국 옷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졸업식 때 입을 옷이라며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옷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측은히 여기면서, ‘참 좋구나’ 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옷은 너무나 흉했던 것입니다. 그걸 때에 어떤 부자 마님이 나타나서 가난한 여학생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쇼핑을 가자’ 고 했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 밖에

나가보니, 밖에는 운전수가 차를 대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섹스 힙스 에비뉴 라는 고급 양장점으로 갔습니다. 멋진 모델이 고급 옷을 하나씩 입고 나와 선을 보이는데, 마지막에 모델이 입고 나온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옷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옷을 보고 매료되어 말문이 막혀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부자 마님은 그 여학생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 옷을 입은 모델을 다시금 가까이 오게 하여 그 옷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모델은 다시 와서 그 옷의 모든 면을 몸을 돌려 보여줄 때, 그 옷에 붙은 가격을 보니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 가격표를 보고, ‘오, 이 세상에 저렇게 비싼 가격의 옷이 있었나?’ 라고 속으로 생각 했습니다. 부자 마님이 그 여학생의 놀란 표정을 보고, 점원에게 그 옷을 상자에 넣어 달라고 하며, 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에 돌아 와서, 부자 마님이 그 옷을 그 여학생에 선물로 주면서, ‘졸업식 때 잘 입으라’ 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 상자에서 옷을 꺼내서 입으니, 너무나 아름답고 몸에 꼭 맞았다. 방에서 나가 친구들에게 그 옷을 보이면서, ‘내가 졸업식 때 입을 옷인데, 좀 보렴. 내 손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이지!’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더기를 이리 저리 부쳐 만든 옷을 입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비뚤어진 바느질, 싸구려 천, 맞지 않는 기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옷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성치 못한 의를 이방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얻어 보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율법을 지키므로 오는 나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바리새인중에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는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이외에는 모두 쓰레기며, 과거의 영광과 향한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형제가 된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소원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10:1-2)**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과 중에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을 자기들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며칠 전에 때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시 전체가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은 열심파들이 사는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였으나, 다른 구역은 차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10:3-4)**

바울이 그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아직도 진실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국의 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고, 조그마한 상자를 앞마에 달고, 줄을 머리에 메고 기도할 때 쓰는 손을 목에 두르고, 몸을 앞으로 계속해서 흔들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대인 친구와 어느날 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이, ‘척 목사님, 나의 부친은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부친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부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설립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가져 와서, 그들 대신에 죽여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뜻을 가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친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재정하신 의를 일부러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길을 실제로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수긍하기가 나에게서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워 보려고 하였으나, 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이를 수도 없었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일 사람이 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하나님과 한 대속자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척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으니 어찌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넓히고 있으니, 그런 자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이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다도, 모하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문을 넓게 열기 때문에, 당신이 적당히 세상과 짝하는 생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꺼리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10:5-8)**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10:8-9)**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보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하루종일 돌아 다니면서 잡지를 나눠 주며, 영적 잠에서 깨워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행성사를 하기 위해서 몇 일간 이 십리나 되는 길을 무릎으로 기어가서, 조각한 어떤 상에 입을 맞추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내어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나의 행위가 가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히 행한 일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일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덟고 냄새가 나는 위험한 늪지대를 통과한 나의 헌신을 거기에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이나, 혹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도 자랑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입술은 주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피와 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되었다는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구원은 당신들 모두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당신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 당신들의 입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이 저 멀리 있어서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 줄을 타고 천국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모셔 오자’ 라던가, 혹은 ‘아스베스토스 옷을 입고, 지옥에 내려가서 무덤에서 메시아를 모시고 올라오자’ 라는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당신의 입만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10:11-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는 말씀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바울에게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주 동등하다는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0:12-13)**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박케 할 자를 강박케 하신다는 말씀을 바울이 선언한 다음, 이 말씀이 곧 이어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켜서 말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자 명단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선택한 사람 중에 속하는가? 어디 보자. 너의 이름이 택한 자의 명부에 없으니, 미안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정되었던지, 아니 되었던지, 혹은 택함을 받았던지, 아니 받았던지, 선택을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당신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나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의지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에게 믿으라고 하셨지, 그것을 화합하여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화합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오랫동안 마음에 숙고해 보았는데, 도저히 화합이 되지 않아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재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성경을 책상 위에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도저히 화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서재를 나와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어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믿으라고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나는 믿었습니다. 당신이 예정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선택을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만일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다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는 사실과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나머지, 교회 앞에 성경구절도 붙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받지 못한 자가 와서 그 구절을 읽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봐?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위치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위치인 예정론과 선택론을 고수한다면, 당신은 진리의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극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두 진술은 모두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화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의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흥미가 있는 사실은 어떻게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0:14-15)**

여기 구절에, 교회가 선교활동을 해야 하는 기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받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키스 에릭슨이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주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드리안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나는 산타 모니카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키스라는 친구가 언젠가 한 날 여기도 왔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그의 간증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남가주에 살면서, UCLA 에서 공부를 했는데, 24 세 때까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장소에서는 아주 크게 실패를 하고 있음을 깨달게 됩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찌 듣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고서 어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초적인 것은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제시한 의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0:15)**

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로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은 텔레비전이나 석간 신문이나 뉴스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강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써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10:16-17).**

사람이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며,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내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믿도록 도와 주십시오. 믿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만일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나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과 함께 식당에 갈비를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나의 아내가 말하기를, ‘오 여보, 그 말을 믿게 도와주시오,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말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할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복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계속 머물게 하는 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자신을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기란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더 큰 믿음을 원합니까?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0:18)**  
예,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키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10:19)**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은혜와 언약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복인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서를 연구 할 때에, 나의 손자들을 놓고 말씀을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손자들을 사랑하는 중에 내가 특히 사랑하는 예쁘고 깜찍하고 영리한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손녀는 특히 나에게서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손녀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를 고사리 같은 자기 손으로 완전히 껴안고 놀지를 않아, 내가 곤혹을 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손녀는 할아버지한테만 오면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손녀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손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얹어 줄 때에, 이 손녀는 와서 팔꿈치로 다른 손자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할아버지곁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손자들이 올 때에, 나는 일부러 그 손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오, 이리로 오라. 와서 내 무릎에 앉으렴! 오늘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라고 말하면, 내가 좋아하지만,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 손녀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내게 달려와서, 그 손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인형과 같은 이 손녀에게 완전히 반해서, 내가 이 손녀를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질투를 일으킬 연극을 조금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의의 길을 떠나 독립적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복 주시면서 말씀 하시기를, “오 나에게 오라. 와서 왕국을 받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모든 축복을 누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유대인들이 팔꿈치를 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백성 아닌 자들로 너를 질투가 나게 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나라로 너에게 노하리라” 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가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10:20-21)**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주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루종일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포기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11 장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당신들의 생활에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실 때에, 그의 능력의 기쁨과 그의 임재를 체험하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빚어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 생활에서 큰 승리를 체험하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이 주간에 당신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당신의 믿음이 더욱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 장을 열도록 합시다

로마서 9 장부터 11 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써 첫째의 목표가 이스라엘나라를 잠깐 제쳐놓고, 그의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 부여주시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 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롬 10:2) 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장에서는 10 장의 연속입니다. 원래의 원어 성경에는 장을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장과 절로 나눈 것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장을 읽고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새로운 장을 읽을 때는 그 전장(前章)의 사상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원래의 성경은 장, 절을 나누지 않았고, 편지와 같이 계속 해서 그 사상을 묘사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읽음이 중요합니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11:1 상)**

현재 불행히도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영적화하여 교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교회에 관련시켜 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구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두 지파가 누구며, 어디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각 지파에서 뽑은 12,000 명을 대 환란의 어떤 심판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이스라엘로, 아니면 앵글로 색슨 족속을 이스라엘로 간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나라를 이스라엘의 단 지파라고, 혹은 덴 사람(Danish)이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Ish’란 말은 ‘사람’이란 뜻인데, ‘Danish’란 말이 발음상으로 덴 사람들이라 하여, ‘단’ 지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British가 영국 사람, foolish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과 같이, 그들의 성경해석이 어감으로 해석하는 옳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단지 예언의 말씀을 혼돈케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며, 이방인들의 완전한 수가 차기 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1 장 25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과 영원히 끝을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전체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관해서 하심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주 흥미로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녀를 아내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예언적인 이름이나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로아미”라 하셨는데, 그 뜻이 “나의 아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과 결혼 중에도 옛날에 하던 창녀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남편을 완전히 버리고, 그의 생활은 격심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완전히 망하였고, 노예로 팔려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노예로 팔린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너의 아내로 받아 드려라” 고 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를 가진 호세아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나라와 자신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며,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눈을 팔고,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아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인데,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11:1 하)*

지금 베냐민 지파는 잃어버린 족속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잃은 족속으로 간주되는 베냐민 지파인 우리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파로부터 오셨고,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잃어버린 족속들이며, 유대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11:2-4)**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여 대승리를 거둔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자!” 고 제안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00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고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 버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바알의 400 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악한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엘리야의 머리를 베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베리라” 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전형적인 일입니다. 그리하여 400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화가 난 여인이 두려워 단숨에 시내 산까지 도망을 가더니, 어느 동굴에 숨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13).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4). 엘리야의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 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 아시며, 숫자까지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특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수하고, 신실한 믿음이 든든한 남은 자들의 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7000 명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굴하지 아니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11:5).**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11:6)**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와 행위는 상호간에 배타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영접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나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접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나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배타적인데도 우리는 이 둘을 겸해 보려고 애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은혜라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떠한도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11:7)**

이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희생제사의 전 목적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세워 보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늘날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옴 키퍼라는 낱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한 날이 아니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키는 옴 키퍼라는 낱은 자기들의 착한 행실을 자기가 행한 악한 행실을 능가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 날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많은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규칙이나 성찬예식에 충실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행하면 영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어 보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많은 일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일꾼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일합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밖에 서 있는 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들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흰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 전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론고 신자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잡지가 든 책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교단체는 자신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라면,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접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얻어졌고,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였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밤상이 울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음이 되게 하옵시고(11:8-9)**

바울은 그가 주장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확실시키기 위하여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구절을 인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주 좋은 확실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였고, 또 다윗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밤상이 울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음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굶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11:9-11)**

이스라엘 넘어져서 영원히 제거를 받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총만함이리요 (11:12)**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스라엘을 잠깐 제하여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잠깐 제하여 둬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선함과 사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충분히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가져왔거늘, 하물며 저희가 회복될 때에 물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천년 왕국이 올 때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져 오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11:13)**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문을 돌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데 대한 많은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를 반역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준다는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선언은 많은 교회들과 종교기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친구 중에 캐나다에 있는 앵글리칸 교회의 집사로 봉사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종생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대단했다. 그가 앵글리칸 혹은 에피스코펠리안 사람들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의 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능력도 받고, 하는 일에 별 이의가 없이 잘 적응을 해나가다가, 그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종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종생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만 받으면 된다는 교회가 믿고 있는 근본 신조에서 어긋나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종생을 해야 된다는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결국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대신에, 그들의 행위를 믿었고, 유아세례와 확인의 의식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의 직분을 더욱 크게 여겨, 말하기를,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썽로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11:14)**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마음 깊은 속의 기도와 소원은 저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며,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바울을 이단사상을 가르치는 자로 여겨 격분하여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 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11:15)**

이스라엘을 잠깐 버림이 하나님과 이방, 세상나라 사이에 화목이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여, 다시금 그의 은총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때는 무슨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11:16)**

처음 익은 열매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자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찌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11:17-20)**

교회 역사를 살펴 보면, 교회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불행히도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불행히도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교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갈 때, 그는 반 유대의 사상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신교에 들어왔고, 오늘날 많은 신교 목사들이 반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도와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신교 목사들로부터 증오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주 받곤 했습니다. 원가지가 꺾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아 버렸으므로, 그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당신들은 원래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원래의 기질에 맞지 않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시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임을 받았고, 너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고 하셨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는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보리 채플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라는 그 부르심에 충실할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집회를 할 마음의 부담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지만, 내 마음에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의 전도 노력은 재정적인 낭비로 느껴지며, 그 재정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 편이라 느낍니다. 나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서 낚시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나라 가운데도 열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재정 낭비인 것 같아서, 현재는 그 재정을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함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질투를 자아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우며, 나에게 화평과 기쁨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당신들의 메시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나의 믿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를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이 아주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몇 년 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상인 베긴과 같이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예루살렘의 메오샤렘 지역에 있는 랍비들로부터 증오에 찬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정통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데 대한 불만의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초정통파의 데모의 주된 목적은 유대인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메시아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권리가 없고, 당신도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아직 갖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에 대한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메오샤렘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요르단 왕에게 편지를 써서, 메오샤렘 지역을 요르단에 부속 지역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불법적인 국가로서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그룹의 관광 유대인 인도자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해 왔던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말하기를, ‘당신들을 또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당신들에 보여줄 것이 있는데, 당신들의 랍비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오!’ 라고 말하고, 그 증오에 찬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는 말이, ‘오, 이것은 쓰레기 편지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신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들의 랍비들이 아닌가요?’ 라고 하자, ‘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광신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랍비들도 종교적 광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스럽게 묻자,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나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같은 종류의 종교적 광신자들이 자기의 신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과격론자들의 우리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당신들도 그러한 과격론자의 우리들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잘려졌고,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11:2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1-5) 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며, 우리의 원래의 기질에 맞지 않는 반대의 기질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부와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만이 얻게 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영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영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11:22).*

하나님의 은총과 복 주심의 자리로부터 떨어짐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영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영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11:22-23).*

그들이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받아 주실 것입니다.

*네가 원 들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라 (11:24)*

당신이 이방 족속인 돌 감람나무에서 잘림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11:25 상)*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비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11:25 하)*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길거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녁 만찬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 하실 때에,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말하기를, “나가서 손님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고 하였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왕이 다시 명하기를, “그러면 나가서 길거리로 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손님이 오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그 초청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란 말은 모두가 아니고, 부분적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혼인예식에 참여할 것인지 그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왕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란 말씀이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 장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때가 기술적으로 1967 년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7 년 이후로 이방인의 총만한 때까지, 즉 이방인들의 성취의 때 사이에, 우리는 짧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이방인들이 1967 년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 가운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위의 어느 곳에 있는 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들어와야 할 이방인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디즈니랜드에 500 만 명째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갑자기 나팔소리가 나며, 북을 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디즈니랜드를 500 만 명째 방문하는 자’ 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는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를 계수하다가, 마지막 500 만 명째의 사람이 들어올 때에 축제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심도 이방인의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마지막 이방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 한 부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생각 할 때에, 나는 날마다 그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을 침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SS21 이라는 무기를 배치시킴으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의 고위 지휘관들은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안전에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곧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게 러시아와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비극의 결과로 중동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레바논을 포기하라는 말을 쉽게 할 것에 대해서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산을 잘못하여 중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친구의 말과 같이, ‘워싱턴에 앉아 있는 자들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라고 외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요사이 자기 나라의 젊은 소년과 소녀들의 훈련 광경을 담은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소녀들의 훈련광경을 이스라엘의 TV 에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CBS, NBC, ABC 는 이 필름이 별로 뉴스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름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를 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막아 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방식과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제작한 이 특수한 필름은 전쟁을 대비한 소녀들의 군사 훈련이었으며, 러시아 보좌관들이 이미 8000 명이나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필름은 시리아 소녀들이 땀을 가지고 다루는 행동을 찍은 영화였습니다. 이 소녀들이 복무하는 군대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땀을 물에 뜬기 시작하여, 그들의 입이 피로 가득 덮여 있고, 그 후에 땀을 생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땀을 죽기까지 물고 찢고 하다가 죽으면, 먹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다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이스라엘 TV 에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잔인한 광경을 비위가 상하여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작은 강아지를 목졸라 죽이며, 사지를 모두 찢어 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은 TV 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을 위한 군사 훈련은 아주 냉정하고 무감각하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대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상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병대를 그곳에 보내어 군인들의 행동을 한정시키고, 마치 오리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도록 가만히 앉아 있게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도 묶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우리들의 손을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 강 건너편에서 자기들의 방에 태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계속 그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들을 모두 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중동으로 쳐들어 올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으로 침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가담하셔서 침략하는 러시아의 군대를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볼 때가 되는 때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이 때가 하나님께서 러시아 군대를 멸망시키는 날이다](겔 39:27).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겔 39:29).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이며, 그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신을 이방인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11:26-28)**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요, 복 주심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11:28)**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11:29)**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11:30-33).*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쳐두신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의 절대주권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역사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11:34-36).*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12:1 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나무의 좋은 것들에 참여케 하셨으니, 이러한 복으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12:1 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복음은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존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로 이끌어 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 본다면, 실로 절망적입니다.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의 막바지 길로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현실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UN 이 세계에 화평을 가져 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현실주의가 우리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층이라고 부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현실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도와 주고 유지할 어떤 종류의 종교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신문들은 항상 비논리적인 이단적 종교를 대중에게 출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라구나 계곡에서 그들이 목상하여 안정과 화평과 미와 사랑과 영접됨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짜릿한 느낌을 가지는 비논리적인 종교적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논리적인 종교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인 관계를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논리적으로 따지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이것이 논리에 맞는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11 장 33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그에게 모두 바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나의 생활을 나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기 때문이며,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여정과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바로 된 생각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세상을 본받는 것을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료들간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이 별나게 할 것이 무엇이나? 모든 사람이 다하는 일인데, 너도 해 보아라!’ 동료들이 세상을 본받도록 강요합니다. 잡지나 TV 에서 세상의 달콤한 어떤 기본을 따르지 않을 때에, 당신은 무엇이 빠져있는 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본받고 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통해 그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 과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강한 어떤 의지나 나의 소원을 성취해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은 나의 생활에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 앓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 내가 이것을 했더라면, 오, 내가 저것을 했더라면’ 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했다면, 아마 내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거, 동행할 때에, 내일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박진감 넘치는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대한 그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실 때에, 날마다 무슨 일을 나에게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12:3)**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나는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대 가운데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차의 시동을 걸 때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믿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활용할 때에 우리 자신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마치 자신이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 스스로 작은 상아탑 을 쌓고,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금전을 축적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사역을 자신의 사리 사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통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를 높이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높이 받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당신의 영향이 감소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아직도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지 않고, 물질의 욕심이나 허영이 동기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나,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불의한 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우지 알지 못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그들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하는 일이므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돌아 다니며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12:4)**

나의 눈은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써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은 듣는 기능을 절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몸에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12:5)**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몸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보리 채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몸의 지체이며, 다른 지체를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죽여도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식별하여, 그를 대항하여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된다. 우리는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나사렛교, 오순절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갈등을 일으켜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살피면서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였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이나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나,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직책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습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는데 용기가 대단할 것이며,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가락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이 하는 일을 칭찬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은 직분과 그가 말은 직분과 함께하여 주님의 몸을 이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입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각자의 지체에 충실하여 성경님의 지시에 의하여 한 몸으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직분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우리는 서로가 하나이며,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12:6)**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12:7)**

섬기는 목회의 일이면, 기다려야 하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12:8)**

교회에 권위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주저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은사를 실행하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행정을 맡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함으로 할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12:9 상)**

은폐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짐이란 사람이 텍사스의 델리오 기차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인 모조의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조의 5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이고 겉으로만 하는 사랑은 하지 말고, 참 사랑을 합시다!

이제 바울은 권위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권위의 구절들은 그 자체가 그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씩 읽어 가면서 음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12:9 하)**

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중의 하나는 옴이 악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옴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싫어 한다고 했으며, 악을 용납하거나 수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10)**

나를 뒤로 돌리고, 형제를 먼저 존경하며,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12:11-12)**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오!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12:13)**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갈보리채플에서 이러한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교회 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그러한 자금이 없다고 말하고 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12:14-15)**

다른 형제의 감정 상태에 민감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12:16)**

모든 작은 일 때까지 권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상컨대, 로메인 목사(척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는 이 말씀으로 대성공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권위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은사를 받아 봉사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12:17)**

진실한 마음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12:18)**

지금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도저히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선택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힘써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12:19-20)**

이 말씀은 실제로 잠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선행을 통하여 당신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얼굴에 숯불을 놓는 듯한 부끄러움을 주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12:21)**

그래서 아주 큰 권위는 여기서 목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9 절로 돌아가서 각 구절마다 목상하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당신 생활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목상함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권위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은 목상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권위의 말씀들을 목상하고, 실행하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때에, 나의 마음속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줌을 발견합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직접 나의 실수와 약한 점을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권위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3 장을 열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선언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13:1)**

성경은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기를, ‘제정된 법이 우리의 의견과 동의될 때만이 복종할 것이라’ 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이 제정한 법을 능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을 느낍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가이사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요구가 정부로부터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관원들, 실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의 양심에 주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들에 관하여는 나는 정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주 질문을 던지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수한 정부를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진리에 대한 도전을 한 사실은 나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할 때, 그가 본 큰 신상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국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을 상징하는 왕국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못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된 왕국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왕국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90 피트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왕국으로 바뀐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자를 세우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일곱 기간 동안 정신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는 광야에 나가 짐승과 함께 살았고,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때까지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가 왕위에 있게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의 기간이 끝이 난 후,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자가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그는 낮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위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우십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자가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높은 권세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13:2)**

당신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13:3)**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면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속으로 달릴 때에 순경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하게 됩니다. 내가 속도 제한 한도에서 운전할 때면, 순찰차가 지나가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속을 할 때에 후면 거울을 쳐다보니, 뒤에서 약 1 km 거리에서 순찰차가 붉은 불을 켜고 달려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속도 미터를 보고, 속력을 줄이고, 속도제한 내의 속력으로 유지하면서 가슴을 조이고, 조심하게 운전하는 동안 붉은 불을 켜고 오는

순찰차가 지나쳐 갈 때에야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속도 제한 내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13:4-5)**

하나님의 자녀로써 법에 순종하는 시민이 되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13:6)**

나는 이 말씀에도 동의하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13:7)**

모든 자들이 그들의 바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칠 세금은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구입한 롤렉스 시계를 몰래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쳐야 할 국세를 바쳐야 합니다. 성경은 속이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하며,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13:8-10)**

예수님께서 하루는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 라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모두 이행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등으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적극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이 모든 계명들의 중심을 하나로 말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 강령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그를 속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13:11 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역사적인 일을 미리 알려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하여 깨어 준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13:11 하)**

나는 대부분의 교회가 모두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기록한 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두 사람이었나, 아니면 세 사람이었나? 라는 연구에 골몰하다 보니, 그 책 속에 이사야가 무엇이라 말했나? 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학문적으로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마태복음을 미화해 보려는 학자의 태도는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참담한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지어내어 성경에 삽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적인 대학에서 학자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잠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성경 학자들이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제거하는 법을 대법원에서 결정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공립학교 제도를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아내가 맥가피 리더를 지난 주에 주문했습니다. 그 책이 도착하였는데, 그 책의 내용을 나의 아내가 나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국민 학생들이 교과서로 읽는 책인데, 그 내용이 도덕과 진실의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 네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덕과 진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큰 죄를 짓은 것처럼 이 땅에서 위법으로 다루어야 하나요? 이러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는 잠자고 있었고, 우리가 잘 동안 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음탕한 잡지들이 우리나라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의 나라들보다 한 걸음 뒤져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인데, ‘무엇이든 좋다’ 라는 태도가 바로 문제입니다. 서구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고,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유럽을 가보면, 실제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의 사후의 세대가 있음을 직감할 것입니다. 길거리로 걸어가다 보면, 반그리스도 정신이 곳곳에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깰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13:11-12)**

우리가 얼마나 더 밀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192 억 달러를 연방 정부가 빚을 지고, 몇 년을 더 지속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몇 년을 더 지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밤의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줍니다. 밤이 깊고, 이제 밝은 동녘이 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온 지구를 덮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깊은 밤이라도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애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13:12-13)**

이것들은 모두 육신의 한 부분들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13:14)**

나는 오늘날 악한 영이 이 땅에 침투하여 음탕한 잡지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듯이 음탕한 잡지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이끌려 가고, 매력을 느껴 빠졌다가, 그것을 떠날 때면,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 고 결심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다시금 유혹되어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음탕한 유혹에 이끌려 음탕한 영에 노예가 되어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장악되어 그것에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음화를 요구하며, 그래도 만족치 못할 때에, 계속 다른 형태의 음행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음화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도덕한 불륜의 관계를 헬라말로 *koite* 라고 해서, 이는 금지된 침상의 욕망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결혼이 근친 간음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혼화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희생이 된 사람들을 볼 때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궤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 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성가시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는 기도와 중보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의지를 거슬러 사로 잡힌 원수들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열고, 이러한 마귀에 속한 것들에 마음 문을 열면, 마귀가 그 사람의 생활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러한 흥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사 왕이 에돔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어 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아하스에게 편지하기를, 나와 우리와 한판 싸우자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이 편지에 답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뒀으면, 집에서 조용히 승리를 축하하고 즐기십시오. 왜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자초하려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에돔을 치고, 승리한 기분에 말하기를, ‘나오라, 병아리들아, 나와 함께 대면하여 싸우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아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시에 쳐들어가서 성벽을 헐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몰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자신에 관한 일 이외에 쓸데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신이 관여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관여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모두 파괴되는 것처럼, 사탄이 당신의 담을 다 무너뜨릴 것이며, 당신에게는 더 이상 방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 당신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처음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면, 패배를 당하여 방어의 담이 모두 무너지고, 원수에 대한 방어를 전혀 못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원수의 포로가 되어 당신은 희생된 것입니다. 원수의 손아귀에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로로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원수들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할 때에, 그들은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 위에 계계를 부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미줄에 걸려 포로된 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계계를 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러한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밤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에 놓고 사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치열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고 가기까지 이 전쟁은 날마다 치열해 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날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상하는 삶과 얼마나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도 같다.” 노아의 때에 한 가지 예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했다. 그들 자신이 삼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삼가 조심하는 일이 없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로마서 14 장은 바울이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14:1)**

난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경우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주 한정되거나, 좁은 견해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14:2)**

오늘날 어떤 종교단체는 채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식의 요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고, 구약 성경에서 새우나 꽃게나 돈고기나 다른 금지된 정결치 못한 동물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돈고기나 꽃게를 좋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기들을 먹을만한 강한 믿음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겠습니까? 내가 채식하는 자들에게, ‘오, 어리석은 사람이야, 고기 먹는 일이 무엇이 잘못이나?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하, 당신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소. 당신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 가책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그 일에 가책을 받길 원하고,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14:3)**

이런 문제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자들을 볼 때에, 나는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도 동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고기를 먹기를 원치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나는 말합니다. 나보다 좁은 마음으로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괴롭지 않다면, 나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마음에 가책도 없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제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14:4 상)**

나를 판단하는 당신은 누군가요?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종이려면, 당신이 나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요,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신은 나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자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14:4 하)**

내가 볼 때에 분명히 그들이 넘어지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조만간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14:5)**

어느 날 주님께 경배할까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할까요? 우리 안식일인 토요일에 주님께 경배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른다면, 우리는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요일 날 주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토요일에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란 영어로 Sunday 이기 때문에, Sun God, 해신을 섬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Saturday 는 Saturn God 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오, 이 날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두째 번은 모든 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어느 날이던 좋습니다. 나는 어느 날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모든 시간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에게서는 매일 같은 날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일입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14:6-8).**

바로 이것이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나는 죽는 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14:9-11)**

바울은 한 몸인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시오, 그분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서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4:12-13)**

우리는 서로 판단을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랑이 우리의 생활을 통치하도록 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질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자유 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위를 보고, 그 형제가 넘어질 만한 일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들이 가책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 맙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소금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논쟁을 벌인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디움 클로라이드입니다. 많이 먹는다면, 혈압이 좀 올라 갈 것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이 가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교정해 보려는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소금을 먹는 것은 죄라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금을 먹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오, 소금을 조금 넣어 먹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금이 담긴 병을 흔들며 그의 삶은 감자 위에 조금 뿌려, ‘소금 없이 먹으면, 너무 싱겁지요’ 라고 말하며, ‘거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 보세요!’ 라고 하면, 즉 그의 의사를 꺾어 억지로 소금을 뿌려 먹게 할 때, 그는 소금 친 감자를 먹으면서, 말하기를, ‘오, 이것 맛이 좋군요. 나의 육신은 그것을 좋아 한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감자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금 친 감자를 먹을 때마다 가책을 받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내게 와서 이상한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동정은 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는 속되니라(14:14)**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시오, 나는 햄을 먹을 수 있고, 돼지 고기도 먹을 수 있소. 이것들은 내게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서는 양심에 가책을 주는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것을 불결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불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아주 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원과 관계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주는 설교를 거듭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네가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들어 갈수 없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죄가 되어 천국에 들어 갈수 없다고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설교 때문에 평생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에 관해 도리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몸의 건강을 위한 이유입니다. 나는 담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얼굴에 나의 주먹이 거의 나갈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의 즐기는 담배로 인하여, 비행기 전체가 담배연기로 꼭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불쾌한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몸의 건강에 관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의 소년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흔히 행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땅에 떨어진 담배꽂이를 주어서 피우고 했습니다. 그 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우리 형편에 담배 한 갑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담배를 여유롭게 살 만한 돈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에, 아니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한, 그들이 예수님과 사귀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자랐던 내가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존경했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시가 담배를 피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지, 상상을 해 보시라.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캠펠 물간이란 유명한 성경주석가도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안 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듯이, 담배를 피는 것이 저주 받을 죄라고 믿지 않는 한, 흡연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죄라고 믿으면, 그것은 죄가 되도 맙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것이 불결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흡연을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흡연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이 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나는 흡연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를 냄새 맡기도 싫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들이 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저주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의 건강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불결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14:15)**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 앞에서 보라는 뜻이 우리의 강한 믿음의 자유를 자랑하는 일은 정말로 삼가 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자유를 보고 그의 마음이 상한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그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나의 기본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해야 합니까? ‘예, 나는 고기를 언제든지 내가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14:16-17)**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참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14:17-20)**

나의 자유 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케 할 때에, 그것이 악이 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14:21)**

그리하여 내가 나의 마음의 가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일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꺼리도록 하는 일이 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술에 중독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5년 전에 코카콜라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가장 나쁜 것을 마셨다면, 그것은 코카콜라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생각될 지 모르나, 이것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마음의 가책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내 평생에 술을 맛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씩 이러한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끊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나 자신이 신앙 양심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여, ‘음, 내가 식사할 때, 샴페인이나 포도주 한 잔쯤은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마신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을 보고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있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끔 가는데, 주일날에 샴페인을 포함한 점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과 사이다나 포도즙을 대신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사과 사이다를 마시는 것을 본다면,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손자가 내 옆에 앉아서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중 앞에서 일부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4:22)**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정직함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었다”(시 32:1).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의 저주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14:23)**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개인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비록 나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전체적인 생각이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에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을 받게 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을 좇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고,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 로마서 15 장을 펴봅시다.

14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느끼는 것과 가책을 받는 것과 우리의 의견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을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꼭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와 꼭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고하는 말은, 당신이 생각 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것이 옳으며, 작은 의견의 차로 인하여 서로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4 장에서 강조하는 점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보라는 뜻이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하여 그들을 실족케 하는 일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며, 꼭 먹어야 한다면, 집에서 홀로 조용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고기가 우상 제물로 올려졌던 것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고기를 먹는 일에 아무런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보라는 뜻이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계속 자기의 강한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는데, 왜 그들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15 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15 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한 마음 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

우리가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갈비를 먹을 것이야!’ 라고,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넘어질 만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을 때에, 비록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아무런 가책을 받지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15:2)***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느끼는 것을 수궁하여 그들과 같이 행하기 위함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때에,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도 아니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따라 행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상한 삶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본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15:3)***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본이 되십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하시기를,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노라.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고 하셨습니다. 좋은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은혜롭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비록 나의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15: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한 인내와 안위를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소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놀랍게도 소망이 얼마나 확대되며, 크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 42:5) 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는 자의 평생에 가져야 할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시편기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하여 말하기를, “나의 영혼아, 네가 왜 낙망하며, 왜 절망에 빠져 있느냐? 왜 마음이 상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좌 위에 계심을 잠깐 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 버릴 때에,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낙망하고 불안하여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의 것임을 얼마나 속히 망각할 때가 많은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인내로써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인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읽고 깨달을 때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 망치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 시간보다 항상 낮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서 지금 당장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한달 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3년이나 기다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성경의 말씀의 안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인내의 하나님(15:5 상)**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나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몇 초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천분의 일초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초, 분, 시간, 날, 주, 달, 년 수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온, 즉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고, 우리들은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인내하신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인내를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15:5)**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되심과 같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위로해야 하며, 서로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인내하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인내함을 감사히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며, 안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15:6-7).**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봉사할 때에, 우리 서로가 사랑과 안위와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당신이 절대적으로 받을만한 완전한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가서 자신의 행동을 깨끗이 하고 다시 오라, 그러면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그렇게 흉측하게 보이는 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2) 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잘 보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잘못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면, 이웃의 작은 실수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반항하는 문화혁명 기간, 곧 히피운동 기간 중에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히피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벡타이만 메고 온다면, 받아들여졌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복장으로 교회에 온다면, 언제든지 당신들을 환영하며, 영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긴 머리와 더러운 청바지를 입은 히피 차림의 젊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만이 내가 당신을 친구로써 영접하며,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한다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영접하는 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서로의 차이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15:8)**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15:9 상)**

나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셋 내지 네 구절을 인용하여 뒷받침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구약성경의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몇몇 다른 구약의 성경에서 같은 주제의 내용의 말씀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경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제목을 준다면, 그는 구약성경에 있는 같은 주제에 대한 적합한 성경 구절을 거침없이 인용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분의 사역이 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오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들이 받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록된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15:9 하)**

사 42:6-7 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15:10)**

신명기 32 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15:11)**

시편 117 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15:12)**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모두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5:13)**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소망의 주제, 곧 모든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소망을 당신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것이 기쁨과 화평인 것입니다. 소망의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 끝나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기쁨이요, 화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기쁨과 화평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느낌에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 예,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 내 마음에 화평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기쁨이 없을 때에도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기쁨이나 화평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기쁨과 화평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심한 두통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오, 오늘은 나의 기분이 좋지 못하니,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까? 믿음이란 기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느낌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 하셨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은 항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나이에 이르면, 날씨도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나의 무릎의 통증으로 예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나의 몸의 증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기분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그분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분의 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결과로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 일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엎치락 뒤치락 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행 27:22-25) 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안심하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구원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으키며, 웃으면서 아마 선박 위를 걷게 하였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배 멀미 나서 죽겠는데, 무슨 말이요?’ 라고 대꾸했을지도 모릅니다. 14 일간 밤낮으로 지중해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은 해와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시다. 나는 주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믿습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고, 그 말씀으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느끼는 감정에다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화평을 느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러한 화평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 마치 더운 물을 나의 머리에 부어 온 몸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마치 전기의 불이 오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구와 같이 반짝하며, 영광스러운 불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때에 느낀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느낌에 그 구원을 관련시키곤 합니다. 구원을 사람들의 느낌에 관련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 얻은 이유를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는 바울이 구원의 도리가 마음에 있음을 말한 사실이 좋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당신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5:13)**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현실화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모든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보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에 대한 복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가지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15:14)**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이러한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15:15)**

나는 당신들이 지식이 있어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편지로 쓰는 바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15:16)**

바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것을 선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직도 필요가 없고, 씻고 정결케 하는 의식의 법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당신을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15:17-18)**

바울 사도는 이방인 가운데서 아주 능력이 있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보다 더한 사역이었으니, 전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라고 말했고, 로마서의 초반에서 선언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어, 그들과 바울에게 서로 덕을 세우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말과 행함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15:19)**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그의 생활에 보이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다” 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15:20)**

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채플교회가 있는 주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흥미가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동기를 묻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 상상하지만, 그래도 자주 그들의 동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 갈보리 채플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의 편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몇 마일 되지 않는 직경의 거리에 가까이 교회를 세운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시지 않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쓰임 받기보다 마치 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나 말씀이 없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직사포를 쓰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갖은 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본 교회 주위에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15:20)**

나는 실제로 모든 교회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목회와 똑같은 것이 아닌 다른 목회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 감정적이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감정적이고 떠들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모임을 좋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향과 촛불을 켜놓고, 정신적인 집중을 좋아하여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네(4) 교회가 조그마한 동네에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겨우 유지하는데 급급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굶는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주의 일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좁은 데서 같은 것을 복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산시에 남침례교회가 22 개였는데, 지금은 37 개가 되었습니다. 37 명의 목사가 굶는 것보다 모두가 하나되어 강한 교회를 이뤄, 주의 일을 더욱 효과 있게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를 가져야만 하고, 다른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칭찬 할만한 것이었습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불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15:21)**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스펀전 목사의 저서를 읽기 좋아하는데, 스펀전은 바울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는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예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불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5:21-22)**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15:23)**

이러한 말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지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15:23-25)**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자기가 그곳에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거둬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헌금은 각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초기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두가 나눠서 먹고 사는 공동생활을 함으로 그 자금이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재산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어진 상태의 어려움을 보고, 바울이 거둔 헌금을 그들에게 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매를 동경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15:25-27)

그들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15:27)**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15:28-29)**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그곳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하였고,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15:30)**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피라미드 형식과 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그들이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로 더 많은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하여 지므로, 자신의 목회하는 것이 더욱 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투산에 갔을 때, 전율을 느끼는 경험을 했는데, 화요일 밤의 모임은 약 천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당신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출근할 때, 나와 함께 출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에 있는 교회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습니디. 비밀히 전해진 편지 내용에는 그들 가운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방송설교를 듣고, 번역하여, 전해 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시베리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보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참된 신자는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많은 신자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고 했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15:31)**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항상 의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이여,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두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어주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이 좋은 유대인인줄 알 것입니다. 바울이여, 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렇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를 강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오면, 그가 말을 직격탄으로 날려 물의를 일으키므로 항상 바울을 환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면서 부탁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헌금과 나를 영접하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15:32-33)*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가지고 오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낙심한 어느날 밤에,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지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들으리라는 확신에 찬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여기를 떠나라. 그들이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긴 했으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그들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도 한 때는 그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만 얻는다면, 설득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에게 그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두 사람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며, 그들을 위해 돈도 지불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단지 믿기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죽도록 때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인 루시우스가 바울을 구출하여 성전을 향하여 지키는 안토니오 망대가 있는 곳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라고 하자, 바울에게는 아주 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 로마 병정이 말하기를, ‘당신 헬라 말을 하나요?’ 라고 의아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물론이오!’ 라고 대답했더니, 로마 병정은, ‘나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인줄 알았소!’라고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로마 병정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며,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연설하기를, “부형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큰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많아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라는 편지와 권세를 받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뉘시오니이까?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이란 말을 듣는 순간 큰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이놈을 죽여라! 이놈을 죽여라’ 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때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찢어 지기 전에, 안으로 끌어 드리라’ 고 말하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기에, 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며 난동을 부리는가?’ 라고 묻고, 매를 치라고 명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치는 것이 로마 관습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매를 치는 자가 들어가서 상관에게 하는 말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밖으로 나와서 묻는 말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나도 시민이요,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라고 말하고, ‘돈을 많이 지불했소!’ 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시민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소원했던 일을 한번 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폭동으로 끝났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영적 부흥집회가 아니라, 실컷 매를 맞고, 아무 열매도 없이 겨우 목숨을 건지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바울은 용기가 더욱 저하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용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여기서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위하여 증거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로마라 말씀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로마에 가기를 심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선언하시기를, “네가 로마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니 가라” 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약 2년간 가이사랴에서 지체하기는 했으나,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로마 여정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여행 여비와 숙식은 로마 정부에서 부담하였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말타라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가기 전에, 말타라는 섬의 추장과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고 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서 16 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몇 부분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16:1)**

뵤뵤는 여집사이고, 겐그레아는 고린도시의 향만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성 제일주의자들에게는 이 여성도가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나, 그는 총성스러운 여집사였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16:2)**

뵤뵤 집사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장을 써서 그 여집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16:3-4)**

지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과 천막장사를 하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팔아 고린도에 있는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행자들의 숙식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은 이 부부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핍박으로 인하여 고린도로 피신하여 오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로마에서도 천막장사를 한 것이 분명하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다시 에베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아볼로라는 성경의 말씀에 능한 자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조용히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만나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신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바울이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 이 서신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온 사실이 마지막 장소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특히 에베소에서는 자기 집을 열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그 부부는 특별한 은혜로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들을 만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16:5-6)**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16:7)**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유니아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도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싫어하는 자들이 다른 의미로도 번역한 것을 보았는데,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로서 알려져 있고, 아니면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하여 그들이 사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나타내 버렸습니다. ‘오, 안될 말이지!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라는 의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말한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들도 이 여성도에게 문안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헬라 말을 조금 굵혀서 억지로 해석을 한 것인데, 실제로 헬라 원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유니아는 참으로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하려고 하는 잘 알려진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실제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이 여성도에 대한 기록을 옳게 찾아내는 일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때에 로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16:13)**

다른 루포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같은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함을 받은 구레뇨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인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루포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6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매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16:14-16)**

다른 지방에서 다르게 문안하는 습관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 전에 멕시코에 갔었는데, 그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악수하고 껴안고 다시금 두 번째 악수를 합니다. 당신들이 멕시코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악수하고, 껴안고, 다시금 악수를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인사할 때에 양쪽 뺨에다 키스를 합니다. 그들은 키스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로마에서는 키스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키스로 서로 문안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지게 하는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6:17)**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장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일을 당신에게 주워서 온 교회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고 가까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관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력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며, 사랑으로 행하는데, 유익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가서 ‘형제여,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난 바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가진 자와 같은 경험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경험을 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강조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바른 성경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주신 계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직 내가 경험치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밖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없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솔직히 당신들에게 고백한다면, 성경 밖의 경험은 내가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경 밖의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놀란 눈으로 말하기를, ‘지난 밤 새벽 세시 경에 나의 침대 앞에 밝은 광채를 발하는 것이 자는 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선언만 하면 된다’ 고 하지를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나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지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16:18 상)**

목회로부터 지워지는 것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고 사는 주의 종은 그 생활이 아주 검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유행하는 비싼 옷을 사 입는다든가, 호화로운 차를 탄다든가, 호화롭고 비싼 물건들 이것 저것들을 마구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써 화려하게 살지 않고, 겸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보다 실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16:18 하)**

TV 목회를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음, 듣기 좋은 말, 유모어가 있는 말을 재미있게 하기는 하지만, 강조하는 면이 잘못 되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6:19)**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 좋습니다.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악에 대해서는 단순한 마음으로 미련하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극장에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려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모두 가보고 이해한 후에야,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애들아, 그것은 바보짓이야! 악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한 일에 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좋은 교훈입니다. 악에 대해서 어리석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삼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16:20)**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끝내기를 아주 아쉬워하면서, 여기서 “아멘” 이란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16:22)**

여기서 바울을 위해 대서를 하고 있던 “더디오가 주안에서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내가 친필로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기록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였으나,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서를 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16:23 상)**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침례를 주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온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16:23-25)**

이방인들에게 내리신 은혜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16:26)**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얻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16:27)**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바울의 로마 서신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주 흥미 진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보낸 대부분의 말씀이 교회에서 많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며,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교정해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교훈이 나오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과 바르게 함이 많이 나오며,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좇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과 교훈을 얻게 되며, 여러분의 신앙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항상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총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기원하며,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